

MANUEL ZOI

MANUEL ZOI

MANUEL ZOI GALLERY
20.10-22.10.2022



THE FLOW

Three Korean artists realized their work in their own way, highly respected in ceramics, watercolor and sculpture, with the common theme ‘The Flow’.

Flow of Time, Kwang Ok Song

The harmony of the free form and pattern of Buncheong ware, which was produced for 200 years from the mid-13th century to the mid-15th century, has the pictorial nature of modern art. This is because realistic patterns, animal patterns, and abstract patterns harmonise with objects and show the artist's creative skill. This artist intends to show the historic nature of Buncheong ware through the modern form and abstract drawing on the rectangular object.

Flow of Consciousness, Giuno Kim

The method of freely drawing the artist's disorderly and miscellaneous world of consciousness is called the stream of consciousness technique. Consciousness is something that belongs to an individual's mind and is continuously changing and flowing. Our inner world is a constant stream of thoughts and consciousness. However, the thoughts, memories, and feelings that come to mind do not appear in an orderly fashion. As a sculptor, I try to express the thoughts and images floating around in my head. Rather than having a specific shape, I try to sculpt the directions freely as I go. I want the fragments of my experiences and habits so far to be revealed purely through my work, regardless of logical causality. I think that is my artistic ability and the unadorned appearance of a sculptor.

Flow of State, Sanha Park

The theme of this work, the flow, is a state of mind that I am completely immersed in while enjoying the moment without being conscious of anything. When I worked on “Without any concern” I listened to “quando, quando, quando,” one of the light and clear Bossa Nova genre songs in Malaga, Spain. I didn't sketch with such a light and light heart, but I just came out of the natural flow that flows through the scenery and mood. As we express that we are united in the flow of time and space without taking time to feel completely at ease and enjoy the moment, I think this work incorporates such a peaceful mind and flow. I hope you enjoy the complete flow and tranquility that you can feel in this work together.

흐름

본 전시는 도자, 조각,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1여 점이 출품되었으며 ‘흐름’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기획된 3인 전입니다. «흐름»전 관람을 통해 시간, 의식 그리고 상태의 흐름 속에 몰입되어 창작된 작품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 송광옥

13C중반부터~15C중반까지 200년동안 제작되어진 분청사기는 자유분방한 형태와 문양의 조화는 현대미술의 회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적인 문양과 동물적인 문양, 추상적인 문양 등 기물과의 조화 속에 절묘한 도공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기물이 가지는 사각 형태의 현대적 조형성과 사실적인 문양을 추상적인 선의 드로잉을 통한 회화성과 예술성의 보여주는 분청사기의 역사성과 시대성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의식의 흐름, 김준호

작가의 무질서하며 잡다한 의식세계를 자유롭게 가감 없이 그려내는 방법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의식은 개인의 마음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속 변화하며 연속적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내면세계는 생각과 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떠오릅니다. 하지만 떠오른 생각이 나 기억, 느낌들은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각가로서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이 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모양이 있기보다 자유롭게 손이 가는 대로, 그 방향들을 조각적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들과 습관들의 파편들이 논리적 인과관계없이 순수하게 작품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예술적 능력이자 조각가로서의 꾸밈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태의 흐름, 박산하

이번 작업의 주제인 흐름은 저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기면서 몰입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를 작업할 당시 스페인 말라가에서 경쾌하고 맑은 보사노바 장르의 노래 중 하나 quando, quando, quando를 들으며 작업한 작품입니다. 그러한 가볍고 경쾌한 마음으로 따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그저 그 풍경과 기분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편안함을 느낄 때 걸리는 것 하나 없이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녹아들며 그 순간을 즐길 때 몰아일체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듯이 이번 작업에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과 흐름을 잘 담아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온전한 흐름과 평온함을 함께 즐겨주길 바랍니다.

Kwang Ok Song is a potter who participated in 15 solo exhibitions, 4 art fairs, and 250 group exhibitions in Korea. He is currently a member of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a member of Changwon Fine Arts Association, and invited artist of Gyeongsangnam-do Art Contest President of Gyeongsangnam-do Ceramist Association, and serves as the president of the Gyeongnam Ceramics Association.

송광옥 도예가는 한국에서 활동하며 개인전 15회, 아트페어 4회, 단체전 250회 참여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국 미협 회원, 창원 미협 회원, 경상 남도 미술 대전 초대 작가이며, 경남 도예가 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Vestige VII, 2013, Buncheong ware, 11.5 × 20 × 5 cm

Representative work This work expresses the modern sense of formability and pictorial nature of Buncheong ware. Each piece of work is created by attaching square clay plates together, then the artist put a drawing with a sharp knife on top of the slip and red clay. Dried and fired at 850°C, Buncheong glazed, reduction fired at 1240°C.

대표작 설명 분청사기의 현대적 조형성과 회화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사각의 흙판을 붙여서 성형하고 화장토(백토)를 바르고 그 위에 황토를 바른 후 예리한 칼로 드로잉을 하고 건조하여 850°C 초벌구이, 다음 분청 유약으로 시유하고 1240°C 환원 소성 한 작품이다.

Born in Seoul in 1994, he entered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ulpture at the University of Seoul in 2012, completed his bachelor's course in 2020, and entered the master's program at the Accademia di Belle Arti di Carrara, Italy in 2021. He works with marble in Carrara, Tuscany.

1994년 서울 출생으로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에 입학하여 2020년에 학사과정을 마치고 2021년도에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토스카나 주의 까라라에서 대리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Indimenticabile (Unforgettable), 2022, statuary carrara marble, 34 × 14 × 40 cm

Representative work

Rather than having a specific shape, it is a work that sculpturally expresses the direction of the hands freely moving. Based on my experiences and habits of living as a sculptor, I expressed my hands as they flowed on marble. This is because I thought this was my artistic ability that I remember and the unadorned figure of a sculptor.

대표작 설명

특정한 모양이 있기보다 자유롭게 손이 가는 방향을 조각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조각가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습관들을 토대로, 내 손이 흘러가는 대로 대리석 위에 표현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나의 예술적 능력이자 조각가로서의 꾸밈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Park San Ha is an illustrator and also a potter. She is usually inspired by the phrase "summer vacation" and tends to collect motivated images from it. Although if it's not related to "summer vacation", she also tries to catch relaxing moments on our daily lives. So why summer vacation? Summer vacation is the most peaceful time when she can express full of emotions without any concerns. Therefore, her artworks are illustrated with colors that makes the audience feel warm and calm.

박산하 작가는 도예, 일러스트, 회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작품을 구축해나갑니다. 주된 작품의 모티브는 Summer Vacation 중에 보았던 풍경들과 Summer Vacation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삶을 휴가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삶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따스한 색감으로 풀어냅니다. Summer Vacation이 작업의 주된 모티브가 된 이유는 가장 편안하고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Summer Vacation은 작가 자신의 감정을 가장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품들 또한 Summer Vacation처럼 편안하고 따스한 그림들을 선보입니다.



Without any concern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2022, water color on paper, 46 × 31 cm

Representative work
The artworks were drawn when the artist was in a most comfortable mindset during 2022 summer vacation. These drawings represent collections of light-hearted images when the artist was swimming in a peaceful moment without any concerns or worries. Feel the happiness and rhythm when in a completely relaxed state.

대표작 설명
작가가 2022년 여름휴가 중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어떠한 걱정과 우려도 없이 그저 온전히 휴식의 순간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피어올랐던 가벼운 마음의 이미지들을 선물처럼 한데 모아 선보입니다. 온전한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절로 피어오르는 웃음과 춤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Beasy is the first collaborative brand between Se Hyeon Jeong(1995-) who majored in graphics and San Ha Park(1996-) who majored in Ceramics. The two people who wanted to do anything perfectly were rather tired of such an obsession. So when forming a team, they decided their name "Beasy". Which shortened "Be easy", hoping to do everything a little easier. A representative project is "Daechung(大蟲)" designed with the brand's ideology.

비이지는 그래픽을 전공한 정세현(1995~)과 도예를 전공한 박산하(1996~)의 첫 협업 브랜드이다.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던 두 사람이 그러한 강박에 치져 조금은 쉽게 살자는 의미로 Be easy를 줄인 Beasy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브랜드 설립의 취지를 담아 기획한 대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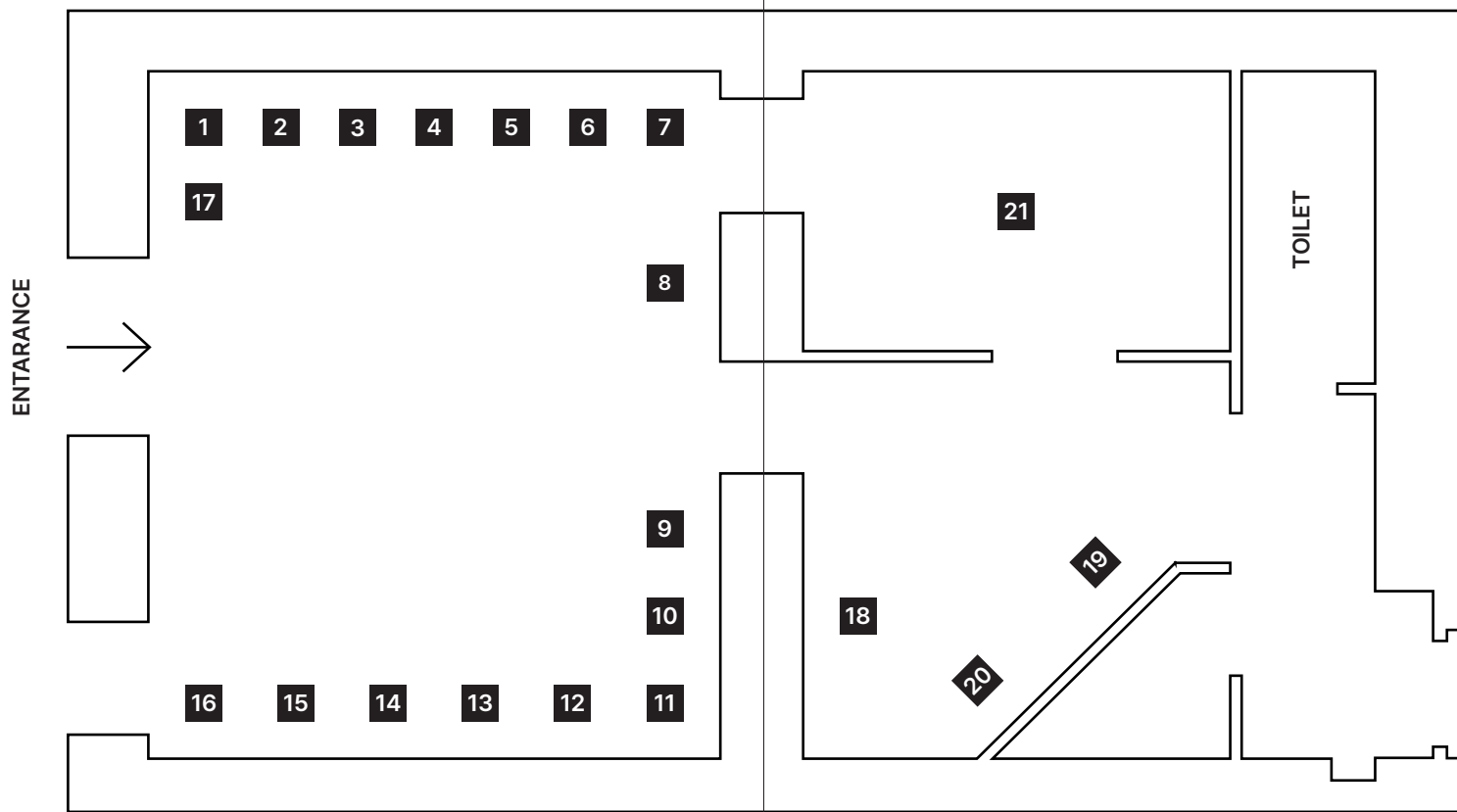
Beasy-Daechung (비이지-대충), 2022, Slip casting and beads, 7 × 8.5 × 2 cm

Representative work

The dictionary meaning of Daechung in Korea is an adverb that contains the meaning of approximately something. And it has the same meaning as doing without thinking. Recently, a meaning used as a joke has been added from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Daechung used as a joke came from what a Korean singer, famous for his passionate image in everything, said on the show. On that show, he said "The most harmful bug to humans is Daechung," which became a hot topic and began to be used like a meme. Daechung in memes has its original meaning and is also used as a word for bugs. This is because the letter Chung [총:總] (which is used in Daechung), which means roughly, has the same sound as Chung [충:蟲], which means a bug. So for him, who works hard at everything, it's literally the most harmful bug in the world. But, Beasy decided to consider Daechung to be the most beneficial worm. The two artists tried to reverse the meaning of 'The most harmful bug Daechung'. And create a work that could give rest notifications to modern people who suffering from self-exploitation of passion. It contains the hope that people in need of rest can help them complete their own marathon without getting tired. Beasy hope that Daechung placed in the corner of someone's room can be a reminder of their flexible attitude to live roughly to some extent.

대표작 설명

대충의 사전적 의미는 대강 추리는 정도 로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는 부사로 얼버무리다 얼추, 건성으로 하다 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세대로부터 농담으로 쓰이는 뜻이 추가됐다. 대충의 새로운 뜻은 매사에 열정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한국의 한 가수가 방송에서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방송에서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화제가 되어 밈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밈에서의 대충은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벌레를 뜻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대충에 쓰이는 총(總)이라는 글자는 벌레라는 뜻을 가진 충(蟲)과 동음이의어로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에게 있어 대충은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인 것이다. 하지만 비이지는 대충을 가장 이로운 벌레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두 작가는 가장 해로운 벌레 대충의 의미를 뒤바꿔 열정이라는 자기 착취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휴식 알림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라톤 완주를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았다. 누군가의 방 한쪽에 놓인 대충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는 대충 살아보자는 유연한 삶의 태도에 대한 알림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1** Without any concern 2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2), 2022, water color on paper, 31 × 46 cm
- 2** Without any concern 3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3), 2022, water color on paper, 31 × 46 cm
- 3** Without any concern 4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4), 2022, water color on paper, 31 × 46 cm
- 4** Without any concern 1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1), 2022, water color on paper, 46 × 31 cm
- 5** Fruit and shell dancing club, 2022, water color on paper, 54.5 × 40 cm
- 6** Ideal cup, 2022, water color on paper, 54.5 × 40 cm
- 7** Moss world, 2022, water color on paper, 54.5 × 40 cm
- 8** Joy, 2022, water color on paper, 54.5 × 40 cm
- 9** Lady in wonderland, 2022, water color on paper, 30 × 27 cm
- 10** Sleeping beauty, 2022, water color on paper, 26 × 18 cm
- 11** Sunshine with cucumber, 2022, water color on paper, 21 × 13 cm
- 12** Vintage cup with grapes, 2022, water color on paper, 13 × 20.5 cm
- 13** Horses, 2022, water color on paper, 14 × 19 cm
- 14** Vintage cup with Palm tree, water color on paper, 40 × 54.5 cm
- 15** Everyday Birthday, water color on paper, 40 × 54.5 cm
- 16** Olive green horses, water color on paper, 20.5 × 20.5 cm
- 17** Beasy-Daechung (비이지-대충), 2022, Slip casting and beads, 7 × 8.5 × 2 cm

- 18** Vestige VII, 2013, Redware (Buncheong), 11.5 × 20 × 5 cm
- 19** Vestige VI, 2020, Ceramics, Liquid gold, 13 × 13 × 16 cm
- 21** Vestige VIII, 2021, Ceramics, 6 × 32 × 6 cm
- 22** Indimenticabile (Unforgettable), 2022, Statuary Carrara Marble, 34 × 14 × 40 cm

THE FLOW	Organized by ARTE Co.	Curatorial Supervisor Jinhee Park
	Exhibition Publicity Manuel Zoia	Exhibition Design Alessandra Sebastiano
	Lighting Alessandra Sebastiano	Printing Fotorent Milano
	Graphic Design Sehyeon Jeong	In cooperation with Manuel Zoia Gallery

흐름	주최 아르떼 아트컨설팅	전시총괄 박진희
	전시홍보 마누엘 조이아	공간 디자인 알레산드라 세바스티아노
	조명 설치 알레산드라 세바스티아노	인쇄 포토렌트 밀라노
	그래픽 디자인 정세현	협력 마누엘 조이아 갤러리

THU	20.10	18:00 - 21:00
FRI	21.10	15:00 - 19:00
SAT	22.10.2022	15:00 - 19:00

Manuel Zoia Gallery
Pietro Maroncelli, 7,
Milano

All texts and images published in this volume are subject to the copyright of each copyright holder.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uthors and the Arte.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아르떼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